

많은 경험과 뛰어난 지도력의

## 신임 정태원 회장



본회 신임 정태원 회장은 폭넓고 박력있는 젊은 기업인으로 우리 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경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정회장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안목을 갖고 있어 우리 나라 축산업 중 양계산업이 겨우 태동하려할 때 홍성사료공사를 지금의 뜻섭에 창설하였다.

양계산업의 발전과 함께 홍성사료공사도 일취월장 발전하여 설립하자마자 상위랭킹에 오르는 기적을 이루는 경영솜씨를 발휘하였다. 업체의 비중에 커짐에 따라 사료협회 부회장으로 경력을 쌓아, 79년부터 6

년간 3회에 걸쳐 이 나라 사료산업의 대표로서 사료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업적은 대한적십자총재, 서울시장(2회), 농수산부 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78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산업포장도 받은 바 있어 그간 정회장의 국가와 축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정회장의 활발한 성격은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덕수상고 총동창회 부회장, 대한곡물협회 서울시지부

회장, 반공연맹 서울시 중구지부장,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민정당 중앙위원, 경희대 동창회이사, 민정당 서울제 1 지구당 부위원장 등 현재 또는 과거의 경력을 보아 이의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강직한 면도 있어 우수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을 정도로 정회장의 철학은 '돈은 쓸만큼 벌어 업계발전을 위해 쓰고 번만큼 정확히 세금도 내야 된다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납세 랭킹 83위로 고액납세자 100위에 유일한 축산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10여년전 시험농장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채란계만도 7만여수로 성장하여 양계인으로써의 정태원 회장의 많은 경험과 뛰어난 지도력은 침체된 양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계산업의 제2 도약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제 양계인의 협력에 따라 제2의 도약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회장은 가정적으로도 부친과(71세), 부인 최창순 여사 사이에 3남의 다복한 가정으로 앞으로 업무를 부사장에게 대폭 이양해 경영을 맡기고 협회발전을 위해 더많은 시간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